

樂學軌範의 處容舞服飾 고증 제작

이 태 옥 · 윤 현 진* · 조 우 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SFDA 전임강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Historical Reconstruction on the Costumes for the *Cheo-yong* Dance in *Ak-Hak-Gue-Peom*

Tae-Ok Lee ; Hyun-Jin Yoon* ; Woo-Hyun Cho†*

Ph. D course in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Instructor, Full time, S DFA*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

(2004. 9. 29. 접수; 12. 20.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construction of Cheo-Yongdance Costume by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Ak-Hak-Gue-Peom*(樂學軌範). Through the production of Cheo-Yongdance Costume by historical research, it is examined and this study is expected that be a help of the right succession of a traditional costume.

Cheo-Yongdance Costume is draught to real size by comparing the size and picture suggested in *Ak-Hak-Gue-Peom*. In the specialty of *Cheoyong*(處容) dance Costume in the drawing, the length of clothes was 152cm that is longer than the length of the excavated *Danlyeong*(團領) of Chosun Dynasty period. Width was 81.9cm that is very big and the width of *Danlyeong* is 11.7cm. The sleeve length of *Hansam*(汗衫) is 210.60cm and it is one that attached *Hansam* to *Jeogori*(저고리). The material used for Cheoyong dance Costume is *Dan*(緞), *Cho*(綃), *Joo*(紬), Red gold patterned brocade(紅金線). At the same part, and as the goal was differently used at the same clothing. As the methods of dyeing, the process of dyeing naturally is suggested. A gardenia seeds, indigo plant, and ink stick are used for the color of blue, red, yellow and black. The producing process is made in concrete by suggesting the process of producing clothing. *Danlyeong* is required the technique of smoothing out wrinkles in case of attaching. *Goon*(裙) was made by making plaits below and attaching string for making form in the literature. *Ui*(衣), *Chon-ui*(天衣) and *Goon*(裙)'s *Bang-sul*(方膝) are drawn a *Man-hwa Mun*(蔓花紋) on *Ak-Hak-Gue-Peom* by using the golden dyeing material. As the result of producing the clothe by using the recorded size in *Ak-Hak-Gue-Peom*, it could be examine a pertinent dance clothing for expressing the dance performance with big motions.

Key Words: Cheo-Yongdance costume(處容舞服飾), *Danlyeong*(團領), *Ui*(衣), *Hansam*(汗衫), *Goon*(裙), *CheonUi*(天衣), *Sang*(裳)

I. 서 언

복식은 인간의 정서와 밀착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시대의 생활풍습의 특성과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특색이 만들어진다. 복식의 고증 제작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가시적 자료의 재현으로 실물복식이 부재하는 시대의상의 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근래에는 출토 유물복식을 재현하여 발표하는 전시회나 시대의상을 다룬 무용,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에서 스테이지코스튬(stage costume)의 장르로 복식의 고증과 현대적 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올바른 고증 작업은 우선 복식사 연구의 한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궁중무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온 處容舞에서 처용이 착용한 복식을 약학궐범에 의거하여 고증 제작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의 약학궐범은 樂人과 舞人의 복식에 관하여 그림과 치수, 색, 소재 등을 제시하여 여말 선초의 복식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헌 사료이다. 처용무는 신라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초까지 이어지며, 연회계층도 서민뿐만 아니라 왕실궁정에도 미쳤으며 다양한 복식구조를 갖고 있는 무용복식이다. 현재 학계에서도 처용의 유래에 대하여 아랍인, 신라인 등의 다양한 접근과 이설이 쟁명하고 있는바, 약학궐범의 처용무복식의 분석적 고증제작은 복식구조의 사적 규명을 통하여 처용지위의 시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증의 범위는 의복류에 중점을 두어 다섯 처용 가운데서 동처용을 선정하고, 사용된 소재와 복색은 문헌에 충실하고자 현존 구입 가능한 근접소재에 천연염색의 실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복식의 구성단계에 따라서 그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완성된 복식은 학회전시회를 거쳐 공개되었고 현행 처용무보존회의 연희자 3인의 착용평가를 거쳤다. 이와 같은 실

험적 고찰은 선행연구 ‘處容舞服飾의 研究(1997, 박진아; /조우현)’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밝혀두며, 이와 같은 고증복식을 통하여 처용무복식을 규명하고, 전통복식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樂學軌範의 처용무복식

樂學軌範은 成宗24年(1493년) 8월 칙명에 의하여, 그 당시 예조판서로 음율에 밝던 成俱가 중심이 되어 主簿 申末乎, 典樂 金福根 등이 지어 올렸으며 전부 9권 3책으로 되어 있다. 樂學軌範 8·9권의 冠服圖說은 장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바, 현존하는 처용 관련 문헌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복식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초의 樂工服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약학궐범의 의복 크기는 尺, 寸, 分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권6에 “樂器及衣物用營造尺, 衣服及衣物用布帛尺”이라 기록하여 약학궐범에서의 의복치수는 布帛尺임을 알 수 있다. 布帛尺이란 의복을 재단하거나 각종 포백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부재적이다.¹⁾

經國大典의 布帛尺은 1485년에 편찬되었고 樂學軌範은 1493년에 편찬되었으므로 경국대전의 布帛尺을 기준으로 약학궐범의 尺을 환산할 수 있다.

약학궐범 처용무복식의 각 의복별 척은 경국대전의 布帛尺(척=46.80, 촌=4.68 분=0.468)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는 cm로 환산하여 처용무복을 제작하였다.²⁾

1. 치수와 제도

처용무복식은 衣와 裙, 汗衫, 裳, 天衣와 吉慶, 帶와 鞋, 紗帽, 假面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물소재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東處容의 衣와 裙, 汗衫, 裳 및 天衣의 5종류를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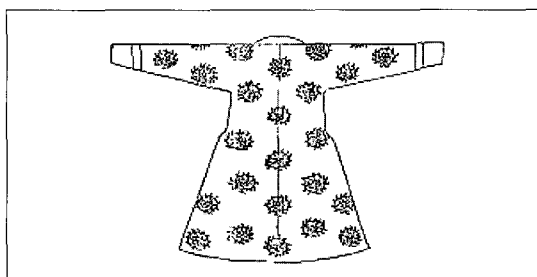
1) 衣

약학궐범상의 衣는 단령을 지칭하고 있으며, <표1>에 그 치수를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處容舞服

¹Corresponding author ; Woo-Hyun Cho

Tel. +82-32-860-8135, Fax. +82-2-596-0070

E-mail : joy54@hanmail.net



<그림1> 樂學軌範의 衣(뒤)



<그림2> 樂學軌範의 衣(앞)

飾의 衣는 길과 단령, 소매, 흉(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東處容의 衣는 겉은 청색의 緞, 안은 홍색의 綃를 사용하였다. 衣의 뒷길이가 152cm, 앞길이 140cm로 12cm의 앞 뒤 차이가 있는 前短後長型으로 옆선에 트임이 있다.³⁾

<표1>에 제시한 출토복식의 단령의 옷 길이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긴 치수이고 衣의 전체적인 치수도 화장과 수구를 제외하고 볼 때 상당히 큰 옷임을 알 수 있다. 소매 끝에는 흑색의 緞과 황색

의 縮가 연결되었다. 소매 형태는 <표1>과 같이 직선형 소매로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형태인데 문헌의 치수인 56cm의 진동과 22cm의 수구를 연결하면 그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악학궤범에 제시된 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6cm의 절반인 29cm를 진동으로 하였다. 후 진동 둘레를 진동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깃의 앞 중심에는 단령에 연결된 직사각형의 흉(胸)이 있으며, 소재는 모두 紅金線으로 녹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여전히 홍금선의 소재고찰에 이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홍색 金絲洋緞을 사용하였다. 처용무복의 단령은 <표2>의 출토단령에 비하여 넓은 치수이다. 길과 소매에 蔓花紋이 있는데, 蔓花紋은 8만화를 당초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天衣와 方膝에서도 보이며 고려 말 조선 초의 특징적인 문양이다. 박진아 논문에서는 ‘蔓’은 당초를 칭하며 ‘花’는 만다라화와 관련된 것으로 8만화를 당초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유사한 문양이 1400년대 남양홍씨의 유물에 나타나고 모란당초문, 연화당초문, 국화당초문 등의 복합문양은 고려 말 선초의 특징적인 문양이라 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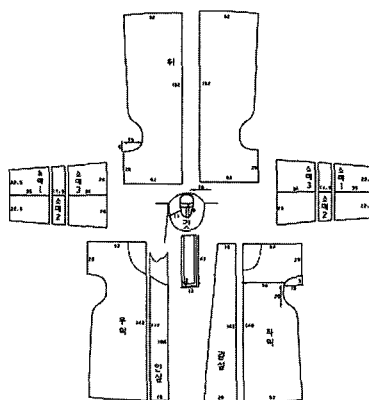
만화문은 문양의 배치와 형태로 보아 衣가 제작된 후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2) 天衣

天衣는 석가여래를 보좌하는 보살이 착용한 것으로 하늘을 날아서 천계에 이르는 의미를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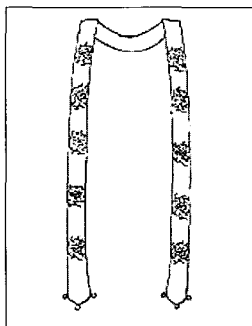
<표1> 衣의 치수와 제도

		尺	寸	分	cm
전체	길이	앞	3		140.40
		뒤	3	2	5
허리	둘레	1	7	5	81.90
소매	長	2	7	5	128.70
	廣(진동)	1	2		56.16
	段이 사용된 너비		2	5	11.7
	段이 사용된 너비		4	9	22.93
	縮가 사용된 길이		7	5	35.10
가슴부분(胸)	袖口너비		4	8	22.46
	길이		9		42.12
	둘레		2	8	13.10
	가장자리 너비			5	2.34
	단령너비		2	5	11.70



〈표2〉 악학계법 처용차와 조선시대 단령(출토복식)의 치수 비교

년 도	옷길이	앞	뒤	화장	뒷폭	진동	수구 (소매나비)	깃나비	착용자
2		136	142	139	73	44	*	*	
*	1493(성종24)	140	152	129	82	56	22	12	處容舞의 舞人
3	1572(선조5)	122	133	140	73	48	38	2	문관 정응두
4	1585(선조18)	114	119	139	84	44	34	4	정3품 무관
5	1592(선조25)	127		119	*	25	21	*	전 박장군
6	중종-선조(추정)	134	136	*	80	44	*	3	이언웅
7		128		98	42	39	36	3	서민
8		123		116	*	26	22(42)	5	*
9	1575-1627	132	122	26	33	27(68)	7		박신통장군
10	1618(광해군10)	130	99	60	32	21	12		김위
11		123	113	*	*	23	*		
12	1634-1704	130	127	*	35	24(68)	5		*
13	1704(숙종30)	130	114	66	*	*	5.2		좌의정 김덕원
14	1820-1898	113	105	*	35	27(61)	6		대원군
15	1870	122	85	*	33	22(54)	5		*
16	1864-1896	129	95	*	28	19(37)	5		고종
17	1920	122	88	23	26	22(45)	*		영친왕
18	1920	122	77	27	*	23(41)	6		*



〈그림3〉 樂學軌範의 天衣

어 天衣衣; 飛天衣 라고도 한다.⁵⁾ 처용무복식의 天衣는 5방의 처용 모두 같은 綠色緞, 안은 紅色紬를 사용하였다. 길이는 395cm이고 너비는 25cm로 넓고 길다. 끝부분은 삼각형이며 각 꼭지점에 구슬이 1개씩 달려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하피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착용 방법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進饌儀軌》에 천의의 착용 모습이 보이는데, 霞披의 착용법과 같이 어깨에 걸쳐 등뒤로 흉배 위치 아래까지 반원으로 늘어뜨리며, 앞에서는 가지런히 치마 끝까지 드리워 두 폭이 겹치지 않도록 착용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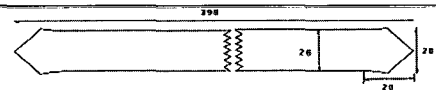
3) 裳

裳은 하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이 착용하던, 폭이 넓고 주름이 잡힌 요권의형과 남성의 제복에 착용되는 전3폭, 후4폭의 로인크로스(loincloth)형인 앞; 뒤치마형으로 나눌 수 있고, 처용무복식의裳은 후자와 연관이 되나,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裳의 구조는 앞부분에 보여지는 幘과 옆부분의裳, 앞으로 늘어지는 纓, 허리말기 그리고 허리끈으로 구성된다.

5방처용 모두 같은 색이며, 幘은 綠色緞-紅金線-黃色紬를 사용하였고, 각각 28cm, 12cm, 2.3cm로 전체 길이가 43cm가 되어 허리에서 무릎 위까지의 길이가 된다. 옆부분의裳은 黃色紬를 사용하였고, 길이 93.5cm 폭은 전폭으로 옷감의 폭을 그대로 전부 사용하면 52cm가 된다. 문헌의 그림에 의하면 幘의 폭보다 매우 좁아야 하나, 본 연구는 문헌의 치수를 우선으로 하여 전폭을 52cm로 하였다. 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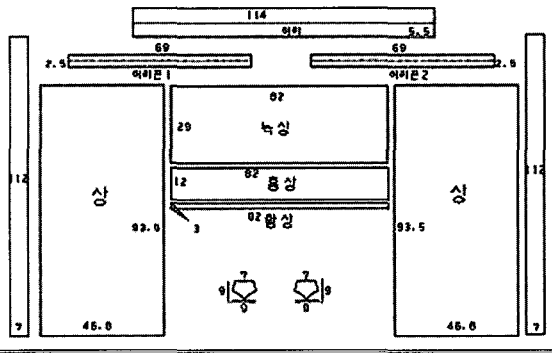
〈표3〉 天衣의 치수와 제도

天衣	전체	길이	尺	寸	分	cm
			너비	8	4	5
			5	6	26.21	



〈표4〉 裳의 치수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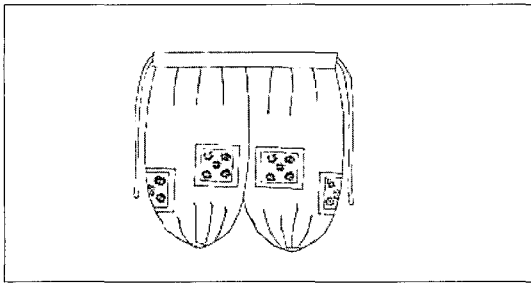
		尺	寸	分	cm		
裳	허리	길이	2	4	5	114.66	
		너비	1	2		5.62	
	裳 앞부분	길이	2			93.60	
		너비	전폭				
	裳 상의앞	길이	녹색단	6	1	28.55	
			홍금선	2	6	12.17	
			황색초			5	2.34
	裳 드리워진 끈	너비		1	7	6	82.37
			길이	2	4		112.32
		녹색의 段	너비	1	5		7.02
길이			1	5		7.02	



紅色緞을 사용하였고, 그 길이가 112cm로 매우 길다. 纓의 끝 부분에는 綠色緞을 사용하여 天衣와 같이 구슬을 달았다. 裳의 복잡한 드림형 장식의 형태는 춤사위에 따라 동작의 리듬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구조로 파악된다.

4) 裙

처용무복식의 裙은, 허리말기에 직사각형의 바지 폭을 앞 중심에서 겹치어 붙이고 부리 부분은



〈그림5〉 樂學軌範의 裙

발목크기에 맞도록 좁힌 샤르와르(shalwar)스타일이다. 착용시에는 끈의 발목부분을 각각 끈으로 묶어 고정하므로 바지의 모습과 같은 말근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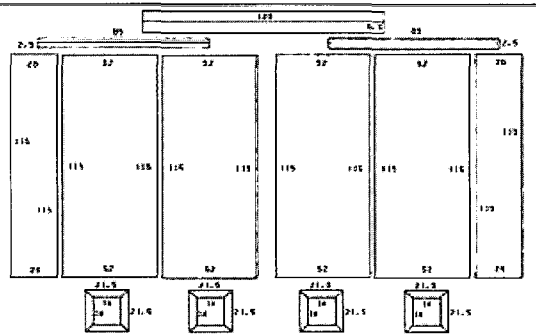
裙은 바지폭, 허리말기, 허리끈, 方膝로 구성된다. 東처용의 裙은 紅色緞을 사용하였으며, 그림의 바지 폭이 2폭 반(130cm)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배래선이 열려 있는 裙을 착용하고 걷거나 춤을 출 경우에도 거의 하체는 노출되지 않는다. 方膝은 바지폭 좌우무릎의 위치에 각각 2개씩 그린다. 綠色線과 가장자리에는 黑色緞을 사용하였고, 사각형의 黑色緞의 중앙에는 앞 뒤 길과 소매에 그려진 무늬와 동일한 형태의 작은 蔓花紋 5개가 있다.

5) 汗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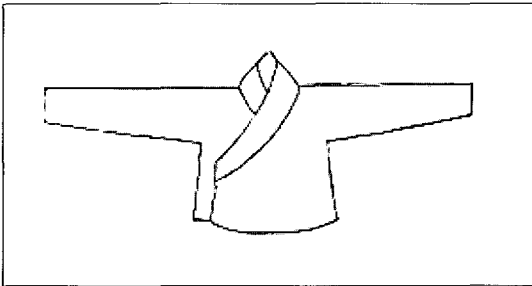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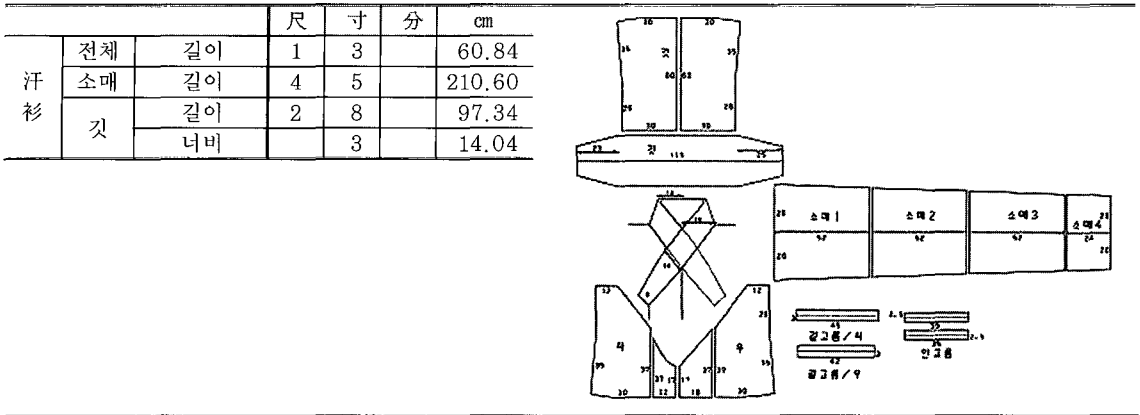
汗衫은 몸에 직접 닿게 착용하는 땀받이 옷으로 속옷이라고 할 수 있다. 처용무복식의 汗衫은 소매가 210cm로 매우 길다. 이는 무용복으로 착용되기 때문에 춤사위의 동작과 리듬을 효과적으로 표현

〈표5〉 裙의 치수와 제도

		尺	寸	分	cm	
裙	허리	길이	2	5	8	120.70
		너비		1	2	5.62
	幅	길이	2	4	7	115.60
		바지폭/한 폭의너비	2폭 반			52



〈표6〉 汗衫의 치수와 제도



〈그림6〉 樂學軌範의 汗衫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汗衫은 5방처용 모두 白色絹를 사용하였고, 길과 깃, 소매, 싹, 고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 소매길이의 특징을 제외하면 조선초 赤古里와 같은 모양이다.

2. 소재, 염색 및 푸새

1) 소재

〈악학궤범〉의 처용무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緞을 주로 사용하였고, 縮와 紬, 紅金線이다. 緞은 모두 겹감, 縮는 안감 또는 부분적으로 겹감에 사용되었으며, 紬는 天衣의 안감으로, 紅金線은 衣와 裳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복식에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증 작업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재영역이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견직물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한복의 수요가 적어 생산되는 소재가 많지 않고, 당시의 직물과 같은 명칭으로 존재하더라도 문양이 현대

적으로 직조되었기 때문에 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緞은 처용무복식 모두에 사용되었는데, 무늬의 종류에 따라 모본단, 법단, 본단, 구단, 수단 등이 있으나 대부분 현대적인 문양이 있고, 문헌을 통해서 緞에 사용된 무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증 제작시 사용된 것은 무늬가 없는 밀도 158; 125/inch공단을 사용하였다.

縮는 얇은 생견직물로 汗衫과 衣의 안감과 소매색동, 裳에 사용되었다. 汗衫의 소재는 처용무의 손동작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춤사위를 잘 표현해주는 가벼운 縮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된 직물의 밀도는 162; 102/inch의 얇고 뽀뽀한 견직물이다.

紬는 天衣의 뒷면에만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직물은 밀도 129; 108/inch의 명주이다.

처용무복의 領과 胸에서 紅金線과 綠色緞이 사용되었는데 紅金線은 裳의 幘부분에도 사용되었다. 紅金線은 특정 직물을 칭한다고 생각하지만 紅金線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요즘 확인할 수 없는 직물로서 정확히 알 수 없어 추후의 연구가 요구되며 본 고증에서는 紅金線 대신 금사양단을 사용하였다. 또, 이외에도 문헌에는 裙의 안감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紅色裙의 안감으로는 衣의 안감과 같은 종류인 紅色縮를 사용하였다. 紅色裙에 사용된 안감은 균의 형체 유지와 볼륨감을 위하여 십지의 역할도 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염색)

고증 제작 시 사용된 소재는 모두 백색으로 각

부위별로 사용된 색은 천연염색 하였다.

東처용무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赤, 靑, 黃, 黑, 白의 오방색과 綠色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 사용된 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천연염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색상을 취하여 고중에 접근하였고 이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물: 스테인리스통, 플라스틱 통, 온도계, 핀셋, 가열기구, 거름망, 메스실린더, 고무장갑, 색상별 염료, 매염제

(1) 先처리-정련

염색에 앞서서 옷감의 후처리시의 가공제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얼룩이 지지않고 고른 염색을 위한 과정으로 정련을 한다. 견직물의 경우 세리신을 약간 남긴 九分練 정도로 정련하며 그 방법은 탄산나트륨(Na_2CO_3) 0.3%용액 80℃에서 옷감을 담가 10분간 주무른 후 수세, 건조한다.

① 紅染

적색은 홍화나 소목, 쪽두서니 등의 염색재료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소목을 사용하였다. 소목은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갈색에서 분홍색까지 다양하게 염색되는데, 소목 염액에 명반을 사용하여 붉은색이 나오도록 하였다. 소목 1200g과 물 12ℓ를 넣고 60분간 끓여 고운 체에 거른다. 이때 같은 방법으로 물 10ℓ를 넣고 2회 추출한 후, 1회 추출액과 혼합한다. 매염제로는 10%명반(직물 무게) 용액을 사용한다. 정련된 옷감을 80℃의 염액에 약 20분간 조심스럽게 아래, 위를 뒤집어 골고루 염액이 묻도록 준비한다. 40℃의 매염제에 20분간 매염을 하고 수세한다. 60℃ 정도의 염액에 20분간 염색을 하고 20분간 매염 후 여러 번 수세하여 건조한다.

② 黃染

황색으로는 울금, 치자, 황벽, 뽕나무, 등나무, 억새풀, 자귀나무 등의 염재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치자를 사용하였다. 치자는 가장 손쉽게 염액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색상이 선명하다. 염액을 추출하기 위해 치자 1200g을 물 12ℓ에 넣고 끓인다. 끓인 1차 염액을 따라 놓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 8ℓ를 넣고 2차 추출하여 1차 염액과 혼합한다. 준비한 옷감을 40-50℃에서 20분간 염색을 한다. 10% 매염제에 20분간 매염을 하여서 수세를 한다.

같은 방법으로 2차 염색과 매염을 해서 여러 번 수세를 한 후 건조시킨다.

③ 綠染

녹색은 딱총나무, 사철 쑥, 쪽 염색에 황색계 염료를 섞는 방법이 있다. 쪽염을 한 옷감에, 치자염을 두 번 반복하여 염색을 한 후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치자 600g을 물 5ℓ에 넣고 끓인다. 끓인 용액을 거름망에 걸러 1차 염액을 추출한다. 물 3ℓ를 다시 넣어 2차 염액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다. 1차 염액과 2차 염액을 혼합하여 40-50℃에서 20분 동안 쪽 염색한 옷감을 재 염색한다. 10% 명반 매염제에 20분간 매염하고 수세한다. 같은 과정으로 2차 염색과 매염을 하고 여러 번 수세를 한 후 건조시킨다.

④ 黑染

흑색으로 사용되는 나무에 떡갈나무, 개울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화에서 쓰는 먹물 같아서 사용하였다. 먹으로 흑색 염액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먹물 같고, 갈아 둔 먹물 0.6ℓ에 12ℓ의 물을 넣어 섞는다. 갈아 둔 먹물은 한지에 받쳐 기름기를 제거한다. 먹물에 매염제로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끓인다. 준비된 젖은 옷감을 넣고 계속 끓이면서 주물러 염색을 한다. 염색이 끝나면 찬물에 4-5회 수세하여 말린다. 2차 염색도 1차 염색과 같은 방법으로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특히 염색에 사용된 단직물은 광택가공이 되어 있어서 80℃에서 30분간 정련하여 먹물을 고루 흡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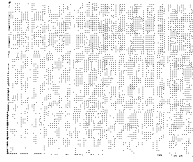
⑤ 藍染

물 10ℓ에 발효쪽 1kg을 풀은 다음 NaOH 40g (PH11-12)과 Glucose 50g을 넣고 꽃 거품이 생기도록 젖는다. 이 때 염액은 탁한 청록색이 된다. 서서히 온도를 70℃까지 올려 산화되지 않도록 안정시켜 산소의 용해에 의한 색소의 산화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서서히 염액의 온도를 30-40℃로 낮추어 직물이 액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담가서 10분간 염색한다. 염액에서 꺼내어 여분의 용액을 제거한 후 바람이 통하는 곳에 놓아 약 10분간 산화시킨다. 원하는 색을 얻을 때까지 수회 염색을 반복한 뒤 마지막에 수세하여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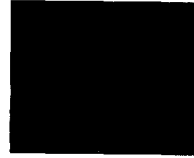
이상의 5가지 색채의 염색물 결과를 color r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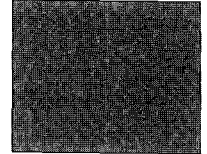
<그림7> 紅色
(19-1656 TPX)



<그림8> 黃色
(13-0739 TPX)



<그림9> 綠色
(19-5920 TPX)



<그림10> 黑色
(19-4203 TPX)

<그림11> 靑色
(19-4118 TPX)

Jx777을 이용하여 먼셀값을 측정하고 PANTONE® for fashion and home으로 색상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값은 홍색 19-1656TPX, 황색 13-0739TPX, 녹색 19-5920TPX, 흑색 19-4203TPX, 청색 19-4118TPX으로, 해당하는 color의 번호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먼셀 측정값은 홍색 3.29R, 황색 3.11Y, 녹색 6.23GY, 흑색 6.76G, 청색 3.30PB로 표기하였으며 <그림7>에서 <그림11>과 같다.

3) 푸새

건조된 염색물은 각각 용도에 따라 푸새의 정도를 다르게 한다. 푸새는 세탁 후 또는 갓 짜내 마전⁸⁾하여 말린 뒤에 풀을 먹이는 것으로 직물에 풀을 하고 다듬어 윤택이 나게 하고 촉감을 증진시키는 후처리 방법의 하나이다.

즉, 천연염색한 직물에 푸새를 하여 완성된 직물로 의복을 만들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다. 이것은 섬유 표면을 깨끗이 정돈된 상태로 만들고 완성된 옷이 줄어들거나 형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⁹⁾이고 천연염색의 견뢰도가 대부분 낮으므로 색상을 안정시키고 바느질할 때의 취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전통 한복 바느질에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옷감의 푸새에는 쌀 풀, 밀가루 풀, 통밀 식힌 풀, 감자녹말 풀 등의 전분풀이 주로 쓰이고 해안지방에서는 해산물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쌀풀을 사용하였다. 물 5ℓ에 쌀 100g을 넣고 약한 물에 1시간 정도 끓여서 끓인 쌀풀을, 광목 주머니에 넣어 주물러서 고운 체에 받쳐 덩어리가 없도록 한다.

마른 옷감을 넣고 풀이 골고루 베이도록 주무른 후 면 보자기에 말아 물기를 제거한다. 옷감을 잘 펴서 빨래줄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반 줌 건조시킨다. 반쯤 건조한 옷감을 날실, 씨실, 대각선 방향으로 맞잡아 당

겨 올을 바꾸고 솔기를 맞추어 물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여러 번 반복하여 밟아 다듬는다¹⁰⁾. 옷감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먼저 경사방향과 위사방향을 차례로 다린 다음 직사방향을 다려 정리한다. 옷감의 길이 안쪽으로 가도록 하여 말아둔다.

3. 마름질 및 봉재

1)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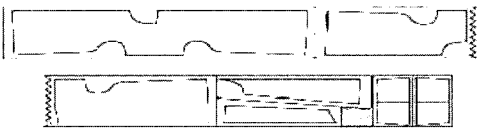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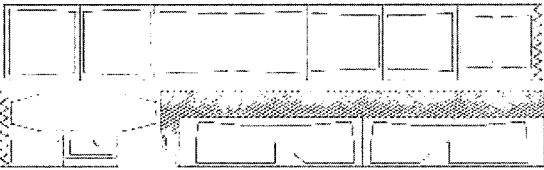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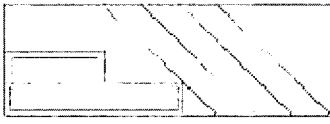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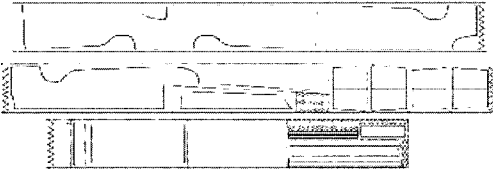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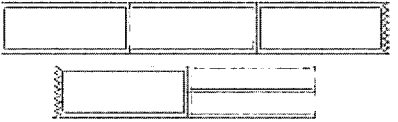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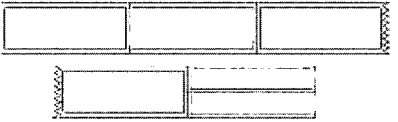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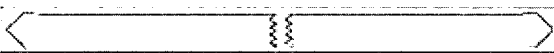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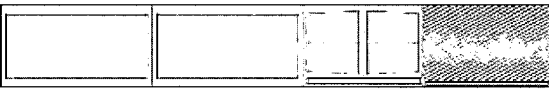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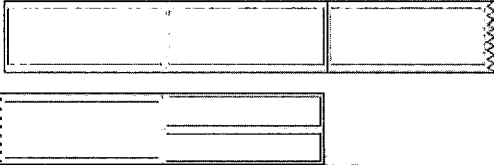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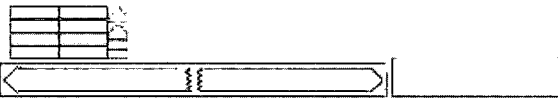

처용무복식은 동일 의복에서도 부분별로 소재와 색상이 다르므로 각 부분에 사용된 소재와 색상을 분류한 후 염색하여 마름질하였다. 옷감의 분량과 색상은 5처용 중의 한 무용수인 東處容服을 기준한 것이다. 마름질에 필요한 것은 모두 8종류의 옷감으로 靑色の 緞, 紅色의 緞, 緞, 紬, 黃色의 緞, 黑色의 緞, 녹색의 緞 및 홍색의 금사양단이다.

靑色 緞은 의의 걸인 길과 소매, 그리고 셔에 사용되었으며 시접은, 세로부분은 2cm, 밑단 부분은 5cm를 주어 사용량은 폭55cm, 길이 830cm이다.

白色 紬는 汗衫에 사용되었으며, 소매가 길어 많은 분량이 소요되었다. 폭55cm, 길이 815cm이다. 紅金線(금사양단)은 의의 胸과 깃, 상의 幘 중간 부분에 사용되었으며, 시접은 모두 2cm씩 두어 사용량은 폭55cm, 길이 175cm이다. 紅色 紬는 의의 안감으로 길, 소매, 셔, 胸에, 裳의 걸감으로는 纓, 허리말기, 허리끈에, 또 裳의 안감인 옆 부분에 사용되었다. 또 裙의 안감인 바지폭에 사용되어서 폭55cm, 길이 2000cm이다. 紅色 紬는 天衣의 안감으로 사용되었고 폭55cm, 길이 400cm이다. 黃色 紬는 裳의 걸감에서 옆 부분의 裳, 幘의 가장 아랫부분, 의의 소매에 사용되었고, 폭55cm, 길이 280cm이다.

紅色 緞은 裙의 걸감인 바지폭과 대넒에 사용되었으며 폭55cm, 길이 630cm이다.

〈표7〉 處容舞服飾의 마름질

색상	소재	마름질	옷감사용량	옷의 명칭	사용 부분
靑色	緞		폭 55cm 길이 830cm	衣 겹감	길 소매 앞
白色	絹		폭 55cm 길이 815cm	汗衫	길 겹 앞 깃 고름
紅色	緞 금사양단		폭 55cm 길이 175cm	衣 겹감	깃 胸
	絹		폭 55cm 길이 2000cm	裳	褶
				衣 안감	길, 소매 앞, 胸
				裳	겹 앞 안감
				裙	바지폭
	紬		폭 55cm 길이 400cm	天衣	안감
黃色	絹		폭 55cm 길이 280cm	裳 겹감	褶 纓
				衣 겹감	소매
紅色	緞		폭 55cm 길이 630cm	裙	바지폭 대님
				衣	소매
綠色	緞		폭 55cm 길이 485cm	天衣	겹 앞
				裳	褶
				衣	胸
黑色	緞		폭 55cm 길이 65cm	衣 겹감	소매
				裙	方膝

綠色緞은 天衣의 걸감과 裳의 幘, 衣의 胸과 裙의 方膝에서 사용되었으며 폭55cm, 길이 485cm이다. 黑色緞은 衣의 걸감소매와 裙의 方膝 가장 자리에 사용되었으며 폭 55cm, 길이 65cm이다.

2) 봉재

(1) 衣

① 등술 :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0.3cm 간격으로 홈질 후, 시점은 2cm로 착용 시 오른쪽으로 한다.

② 쇄 : 걸쇠의 직선 부분을 앞길 왼쪽의 쇄선에 대고 0.3cm 땀의 반박음질로 하여 시점을 걸쇠 쪽으로 한 후, 안쇠는 어슷 솔기를 앞길 오른쪽 앞 중심선 위치에 놓아서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하고 2cm의 시점을 길 쪽으로 넘긴다.

③ 소매 : 소매의 黃絹 35cm, 黑緞 11.7cm, 靑緞 30.5cm를 차례로 0.3cm 땀으로 반박음질 한 후, 길의 진동과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하여 가름솔 한다.

④ 안짓기 : 걸과 같이 하되 쇄의 위치만 반대로 한다.

⑤ 안팍 맞추기 : 걸감의 걸과, 안감의 걸끼리 솔기를 맞추어 시침한 후, 소매부리, 도련, 옆선을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한다.

⑥ 4겹 박기 : 소매배래만 겹쳐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한 다음 뒤집어서 정리한다.

⑦ 胸 만들기 : 綠色의 단을 紅金線의 胸에 대고 가장자리에 綠色이 2cm 보이도록 0.3cm 간격으로 홈질한다.

⑧ 단령 만들기 : 단령의 모양을 고정시켜 바느질하는데, 단령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정 바이어스로 이은 후 윗부분을 잡아 줄이고 아래 부분은 당겨서 늘린다. 걸쇠 위에 胸과 단령을 한꺼번에 고정시켜야 한다.

⑨ 무부분의 중간 부분을 15cm 정도 0.2cm 간격으로 감침질 한다.

⑩ 완성 후 蔓花紋을 그린다.

(2) 天衣

① 걸감의 걸과 안감의 걸을 마주대고 天衣 중간에 창구멍을 두고 둘러 0.3cm 간격으로 홈질을 한다.

② 뒤집어 잘 마무리한다.

③ 蔓花紋을 그린다.

(3) 裳

① 裳의 걸감 길이 93.6cm의 黃絹와 안감 紅絹를 걸감끼리 마주대고 ‘ㄷ’자로 둘러 0.3cm 간격으로 홈질한다.

② 幘의 綠緞 28.5cm, 紅金線 12.2cm, 黃絹 2.3cm 순서로 잇대어 0.3cm 간격으로 홈질하고, 안감의 紅絹와 ‘ㄷ’자로 둘러 0.3cm 간격으로 홈질하여 뒤집는다.

③ 纓의 옆선을 걸감의 걸과 안감의 걸을 마주대고 0.3cm 간격으로 홈질하고, 아래쪽에 綠緞 부분을 넣고 0.3cm 땀의 반박음질을 하여 뒤집는다.

④ 허리 114cm의 중간 지점에서 각각 5cm 떨어진 위치에 纓을 배치하고, 그 안에 1cm의 주름을 4개씩 잡는다. 纓과 裳의 사이에는 1.5cm의 주름을 7개 잡아, 길이 82cm를 48cm로 한다. 46.8cm의 裳에 5개의 주름을 넣어 33cm가 되도록 한 후, 완성 허리길이 114cm가 되도록 하여 허리를 단다.

⑤ 허리끈을 단다.

(4) 裙

① 2폭 반을 연결하여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하고, 시점은 가름솔을 한다. 반폭이 되는 부분은 시점이 밖을 향하도록 한다.

② 걸감의 걸과 안감의 걸을 마주대고 0.3cm 땀으로 반박음질한다. 시점은 걸감 쪽으로 한다.

③ 오른쪽을 위로 하여 10cm 겹치고, 오른쪽에는 6개의 주름, 왼쪽에는 5개의 주름을 잡는다.

④ 허리를 단다.

⑤ 方膝의 가장자리 흑단에 綠緞으로 선을 대어 裙에 붙인다.

⑥ 方膝에 蔓花紋을 그린다.

(5) 汗衫

① 등술 : 뒷길의 좌우를 붙여서 통솔로 바느질한 후 시점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꺾는다.

② 쇄 : 걸쇠의 직선을 왼쪽 앞길 쇄선에 대고 통솔로 바느질한다.

걸쇠 쪽으로 시점을 꺾은 다음, 안쇠는 어슷솔기를 오른쪽 앞길 앞 중심선 위치에 대고, 통솔로 바느질한 후 시점을 길 쪽으로 넘긴다. 소매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쇄부터 바느질한다.

③ 소매 : 소매 4개의 조각을 통솔로 이어 붙이고

소매 쪽으로 시접을 꺾어 다림질 한다. 진동을 통솔로 바느질한 후 시접은 소매 쪽으로 꺾는다.

④ 앞길과 뒷길을 마주대고 옆선, 소매배래를 0.3cm 간격으로 통솔로 바느질한다.

⑤ 앞, 뒤 도련과 소매부리를 말아 감침질을 한다.

⑥ 골로 재단한 것에 1겹의 심지를 덧댄 후 깃을 꺾어 단다.

⑦ 고름을 단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동처용무복 고증 제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에서 제시한 치수와 그림을 비교하여 실물 크기로 제도하였다. 이때 척(尺), 분(分), 촌(寸)으로 기록된 布帛尺은, 경국대전의 布帛尺을 기준(尺=46.8cm, 寸=4.68cm, 分=0.48cm)으로 현재 사용되는 cm로 환산하였다. 제도상에 나타난 처용무복식의 특징은 의 앞 길이는 140cm, 뒷 길이는 152cm로 길었고 품은 81.9cm였다. 단령의 너비는 11.7이며 당시 단령의 너비(4-7)보다 넓었다. 한삼의 화장도 210.6cm로 매우 길었다. 이와 같이 처용무복의 치수가 당시 의복보다 큰 것은 사모가 부착된 탈의 크기와 비례하여 전반적으로 의복의 치수도 컸으리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치수로 살펴보면 당시 처용무용수는 일정한 체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2. 처용무복식의 소재는 緞, 緞, 紬로, 동일한복에서도 부분별로 소재가 다르고, 색상 또한 차이나게 사용되었다. 사용된 소재는, 문헌에 제시된 소재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재료를 기존의 직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한 의복에 있어서도 부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이 사용되어, 색상별 옷감의 필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머물린 제작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색상과 소재는 靑緞, 白緞, 紅緞, 紅緞, 黃緞, 黑緞, 綠緞, 紅金線(금사 양단) 등이다.

3. 이를 각각 염색하는 방법으로 천연염색의 과정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필요한 색상은 靑, 紅, 黃, 綠, 黑으로 소목, 치자, 쪽염, 먹을 사용하였다. 홍염은 소목의 수세 건뢰도를 높이기 위해 2회 반복 염색을 하였고, 황염은 치자를, 녹색은 쪽염에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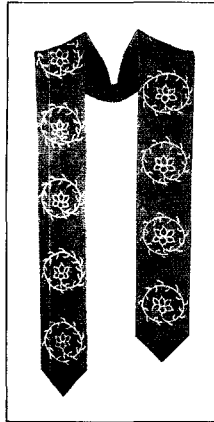
자액으로 재염색하고 매염을 하였다. 흑염은 먹을 사용하였으며, 100℃에서 소금을 넣고 2회 반복염색하였다.

4. 봉제 과정을 제시하여, 제작의 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당시 유물의 바느질 방법에 기초하도록 노력하였다. 衣에서 둥글게 처리된 무는 조선초기의 단령과 같이 衣의 옆 부분을 트이도록 하였으며, 단령은 부착시 주름을 최소화 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裙은 문헌상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밑단에 끈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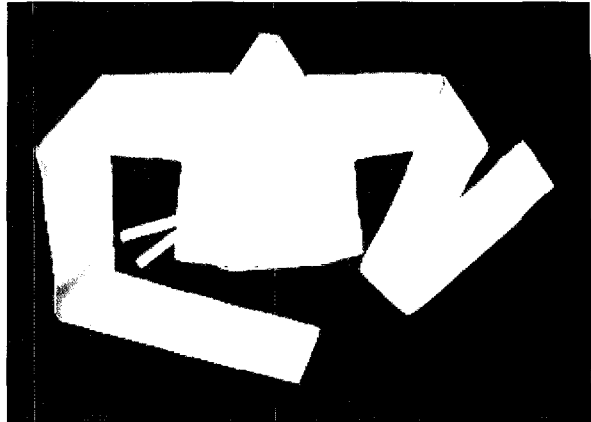
5. 금분에 안료를 섞어 문헌상의 蔓花紋을 衣와, 天衣, 裙의 方膝에 그렸다.

문헌에 기록된 치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옷을 제작한 결과 조선 초기에 규격화되어 기록된 악학궤범의 의복으로 그 당시의 처용무복을 착용한 무인의 신체 치수를 유추할 수 있었다<그림 12>. 전체적인 착용 상을 확인하기 위해 고증된 처용무복을 국립국악원 처용무 단원들에게 입혀 본 결과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의 기능보유자 김천홍용(95세)은 치수가 크고 뻣뻣하나 품격미가 있다고 했으며, 전수자 김용목은 처용무복의 蔓花紋이 현재의 조명이나 무대에서의 표현성은 미약하나 춤의 동작과 착용감은 일등하다고 했다. 전수자 이진호는 색상과 형태가 안정적이고 춤의 의미가 잘 표현된다고 했다. 다만 복식 전체를 착용하는 순서에 있어서 현행 연희시에는 裳을 衣의 안쪽에 입고 있으나, 蔽膝과 같이 裳을 衣의 겉쪽으로 즉, 帶에 걸어서 착용한다면 상의 구조적 특징과 색상의 조화 등에서 오는 춤사위와 표현미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고증된 처용무복은 다양한 복식구조를 갖고 오방색의 미적 조화를 통하여 큰 동작의 춤사위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舞服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과거의 복식을 고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재의 선택과, 색채이다. 당시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와 문양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또한 직물별 천연염색의 색채 표준화와 그 체계적인 작업도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출토 복식과 문헌을 통한 구성법도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고가 한국복식의 시대별 의복 규명과 고증재현의 자료로 우선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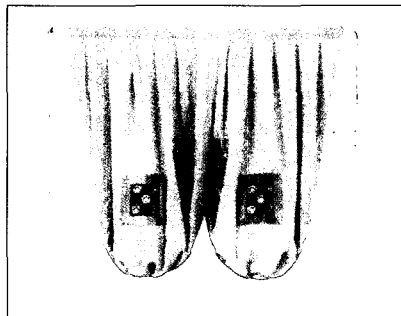
〈天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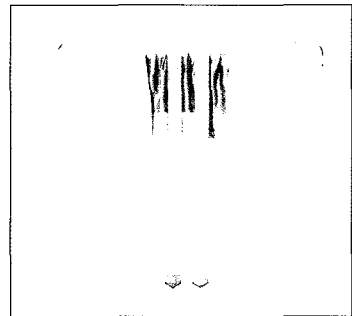
〈汗衫〉



〈衣〉



〈裙〉



〈裳〉

〈그림12〉 완성된 동처용복식

참고문헌

- 1) 박진아 (1996). 처용무복식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 2) Ibid., p.47.
- 3) 박진아, 조우현 (1997). 처용무복식의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1(1), p.131.
- 4) 박진아 논문에서는 ‘蓼’은 당초를 칭하며 ‘花’는 만다라화와 관련된 것으로 8만화를 당초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유사한 문양이 1400년대 남양홍씨의 유물에 나타나고 모란당초문, 연화당초문, 국화당초문 등의 복합문양은 고려 말 선초의 특징적인 문양이라 하였다.
- 5) 김원룡 (1998).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39.
- 6) 박진아 (1996). Op. cit., p.30.
- 7) PANTONE® for fashion and home. color specifier paper, A component of the PANTONE Textile Color System®. Pantone. Inc. 2003.
- 8) 갓 짜아낸 직물을 빨아 햇볕에 널어 바래는 세탁 방법.
- 9) 백영미, 권영숙 (1999). 전통복식. 경춘사, p.24.
- 10) 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1986). 한국 민속 종합 보고서 제 17집 의생활편.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p.131.